



이날도 꼴이 떨어질 수 있을까?



이필모·서수연

●이필모·서수연, 혼수장만 : 꼴 떨어지는 예비 신혼부부도 부부싸움 연습 한번 하고 지나간다는 날이 있으니 바로 혼수장만하는 날이다.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웨딩화보 촬영현장을 선보였던 이들 커플은 신혼집도 공개할 예정. 이필모가 혼자 살던 집을 신혼집으로 탈바꿈 시키는 과정이 눈길을 끈다. 예비신부 서수연은 인테리어 디자인이냐로도 활동 중이다. 이들은 신혼집을 DIY 가수로 꾸미겠다는 ‘야심찬’ 계획도 세웠다. 우리 신혼 때 생각이 솔솔. 투닥투닥 잘도 싸워가며 겨우 장물을 샀는데, 신혼집에 가보니 불박이 장롱이 있었지.

“넌 누구나” 음모론 솔솔



판빙빙

●판빙빙, 근황 공개 : 탈세 혐의로 중국 세무당국으로 부터 1000억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당해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던 중국 스타배우 판빙빙이 최근 SNS를 통해 근황을 공개했다. 판빙빙은 짧은 새해인사와 함께 자신의 사진을 올렸다. 판빙빙이 근황을 알린 것은 무려 9개월 만이다. 팬들은 “얼굴이 수척해 보인다”며 안타까워하는 분위기. “진짜 판빙빙이 아닌 것 같다”는 음모론도 보인다. 그리고 보니 좀 안 닮은 것 같기도.

악플러, 떨고 있니?

●유튜버 양예원, 악플러 고소 : 유튜버 양예원이 악플러들을 고소한다는 소식, 무려 100여명에 달한다. ‘조작사진’ 허위글 유포와 가족에 대한 모욕, 욕설에 대한 분노의 반격이다. 양씨 측은 “이번 고소는 시작일 뿐”이라 경고했다. 양씨의 사진을 유출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은 지난 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악플은 No No! 악플은 또다른 범죄입니다.

1 신파 없는 정통 코미디로 1000만 관객 신화

2 진선규·이하늬 등 신선한 캐스팅

3 코미디영화 첫 시리즈 탄생 예고

지금까지 없던 1000만 영화의 탄생이다. 정통 코미디 ‘극한직업’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6일 낮12시25분 기준 누적관객 1000만 명을 돌파했다. 2003년 ‘실미도’ 이후 한국영화로는 통산 18번째다. 오직 웃음으로만 승부한 영화의 첫 1000만 성과다. ‘극한직업’ 속 대사를 인용한다면 “지금까지 이런 코미디는 없었다”라는 평가가 제격이다.

●‘신파’ 없는 코미디

코미디 장르로 구분되는 영화가 1000만 관객을 모으기는 2013년 ‘7번방의 선물’이 처음이다. 하지만 ‘7번방의 선물’은 영화 말미 눈물을 자극하는 최루성 질은 이야기를 배치해 흥행을 견인했다는 사실에서 ‘극한직업’과의 차이가 뚜렷하다. 이와 비교한다면 ‘극한직업’은 눈물 없는 정통 코미디가 겨운 첫 1000만 성공이다.

투자배급사 CJ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6일 “설 연휴가 시작된 2일부터 성별과 연령대 구분 없이 매일 100만 안팎의 관객을 모았다”며 “개봉 이후 CGV에그지수, 포털사이트 평점이 오르는 사실은 관객의 높은 선호로 가능했다”고 밝혔다.



진선규, 공명, 류승룡, 이하늬, 이동휘(왼쪽부터)가 주연한 영화 ‘극한직업’이 6일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 통쾌한 웃음으로 설 연휴 극장가를 장악하며 코미디 영화의 부활을 알리고 있다.

연휴가 끝나고도 당분간 ‘극한직업’의 독주가 예상된다. 뚜렷한 경쟁 영화가 없는 상황을 고려하면 1000만을 넘어 그 이상의 기록 경신에도 시선이 쏠린다.

●‘이름값’ 보다 ‘내실’ 집중 캐스팅

‘극한직업’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는 배경은 여럿이다. 감각적이면서도 허를 찌르는 에피소드와 대사, 코미디에 최적화된 이병헌 감독의 연출력, 웃긴 영화를 기다려온 관객의 요구, 기막힌 개봉 타이밍이 맞물린 결과다.

이에 더해 최적의 캐스팅 역시 ‘결정적 한 방’으로 통한다. 티켓과워를 갖춘 스타 배우에 치중하지 않고 역할에 녹아들만한 배우

5인을 엄선, 적재적소 배치해 성공을 거뒀다. 톱 배우에 치중된 한국영화 캐스팅 관행에 던지는 의미 있는 메시지도.

극의 중심인 마약반 형사 5인 가운데 주연으로 활약해온 배우는 류승룡 정도다. 나머지 진선규 이하늬 이동휘 공명은 주연이더라도 역할이 적었고 사실 대개 조연에 머물러왔다.

이병헌 감독은 “전형성에서 벗어나 신선한 조합의 캐스팅을 이루고 싶었다”고 밝혔다. ‘범죄도시’의 악역으로 한창 주목받던 진선규를 절대미각을 지닌 마행사役に 캐스팅하거나, 미스코리아 출신 이하늬에게 망가짐도 불사하는 열혈 장행사역을 맡긴 이유다.

●‘시리즈 기획’ 공고히

‘극한직업’ 흥행을 계기로 최근 한국영화의 주요 화두인 ‘시리즈 기획’은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하나의 세계관 아래 이야기를 확장하는 방식의 시리즈 영화를 향한 요구와 기대가 활발한 상황에서 ‘극한직업’은 그 조건에 적절히 부합하는 흥행작이기 때문이다. 지금같은 추세라면 ‘극한직업’은 정통 코미디 영화로 첫 시리즈 작품이 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영화 말미 주인공 5인의 숨은 능력이 드러나면서 후속편에 대한 관객의 기대를 한껏 높이기도 했다. 이병헌 감독은 개봉 전 간담회에서 “관객의 반응이 좋다면 (후속편을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이해리 기자 goli1024@donga.com

명절 1000만 영화엔 류승룡 있다

광해, 왕이 된 남자·7번방의 선물 이어 극한직업까지 3편 모두 주연배우 출연

명절 1000만 영화 탄생의 중심에는 늘 류승룡이 있다.

배우 류승룡이 이번 설 명절에 새로운 기록을 추가했다. 주연영화 ‘극한직업’이 6일 누적 관객 1000만 명을 돌파하면서 유독 명절에 강한 면모를 다시금 증명했다.

‘극한직업’까지 포함해 역대 1000만 흥행한 국영화는 총 18편이다. 대부분 7, 8월 여름과

12월 겨울 극장 성수기에 개봉한 대작들이 1000만 클럽에 들었다. 설과 추석 명절에 맞춰 개봉한 한국영화 가운데 1000만 관객 성과를 낸 작품은 단 3편뿐이다. 2012년 추석 연휴를 앞두고 9월13일 개봉한 ‘광해, 왕이 된 남자’(1232만 명)와 2013년 설 연휴를 겨냥해 1월 23일 공개한 ‘7번방의 선물’(1281만) 그리고 올해 설 극장가를 석권한 ‘극한직업’까지다.

흥미롭게도 이들 3편의 주연배우는 모두 류승룡이다. 극장 박스오피스에 자주 나서는 스타들

이 여럿이지만 유독 설과 추석 명절에 막강한 티켓파워를 과시한 배우는 류승룡이 유일무이하다. 누구도 이루지 못한 독보적인 ‘명절 파워’다.

류승룡은 ‘명량’까지 더해 1000만 클럽에 주연영화 4편이 포함시켰다. 물론 1000만 흥행 기록이 그 영화의 작품성과 가치를 드러내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지만 대중적인 선호를 가능케 하는 수치로 통한다는 사실에서 류승룡의 진가가 확인되는 대목이다. 이해리 기자

“‘낙시꾼 스윙’ 최호성이 왔다” PGA 스타들 즐거운 환호성

작년 日투어 우승 후 PGA 초청 받아 오늘 개막하는 페블비치 프로암 출격 러플스·레비오다 등 SNS 사진 게재 PGA투어, 일대기 다룬 기사 신기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7일(한국시간) 개막하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AT&T 페블비치 프로암(총 상금 760만 달러·한화 약 85억 원)이 단 한 명의 새로운 등장으로 인해 들썩이고 있다. 주인공은 ‘낙시꾼 스윙’으로 유명한 최호성(46)이다.

누구도 쉽게 따라할 수 없는 드라이버 스윙 동작으로 전 세계 골프팬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최호성이 마침내 미국 본토에 상륙한다. 정상급 프로골퍼들은 물론 각계각층 인사들이 모두 모이는 페블비치 프로암을 통해 세계 골프계의 중심 무대에 발을 디딘다.

최호성은 지난해 자신의 스윙 영상이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유명세를 떨치기 시작했다. 피니시 동작에서 마치 낙시꾼처럼 몸을 비틀며 클럽을 낙야채듯 들어올리는 장면은 모두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여기에 지난해 11월 일본프로골프(JGTO) 투어 카시오 월드 오픈 우승을 통해 실력까지 인정받으면서 관심이 증폭됐다. 이에 많은 골프팬들 사이에서 “최호성을 PGA 투어 정규대회로 초청해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PGA 투어 측이 지난달 최호성을 정식 초청하면



서 낙시꾼 스윙의 미국 상륙작전이 성사됐다.

낙시꾼 스윙을 현장에서 보게 된 PGA 투어와 현지 골프팬들 그리고 프로골퍼들은 벌써부터 다양한 방법을 통해 최호성을 향한 애정을 표출하고 있다. 라이언 러플스(21·호주)와 헝크 레비오다(25·미국) 등은 연습라운드 도중 최호성과 찍은 사진을 자신들의 SNS에 올리며 신기함을 드러냈다.

PGA 투어는 대회 개막을 하루 앞둔 6일 ‘최호성을 알게 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최호성이 수산고 재학 시절 참치를 해체하는 현장학습에 임하다가 오른손 엄지손가락 첫 마디를 잃었고, 25살 때 뉘트게 골프에 입문해 지금에 이르렀다는 내용 등을 상세하게 보도했다. PGA 투어가 이처럼 선수 한 명의 일대기를 다룬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꿈에 그리던 골프 본고장 데뷔를 이룬 최호성은 개막을 앞둔 지난달 26일 미국에 도착해 열흘간 현지 적응훈련을 모두 마쳤다. 할리우드 배우 크리스 오도넬(49·미국)과 같은 조를 이룬 필드 위의 낙시꾼은 이번에도 월척을 낚아 올릴 수 있을까.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낙시꾼 스윙’으로 유명한 최호성이 마침내 미국 중심무에 상륙한다. PGA 투어로부터 정식 초청을 받은 최호성은 7일(한국시간) 개막하는 AT&T 페블비치 프로암을 통해 미국 무대 데뷔전을 치른다. 최호성이 지난해 12월 JGTO 투어 JT컵에서 특유의 스윙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KPGA